

## 증제 서평

### 한국전쟁과 전염병 연구 어떻게 볼 것인가

이입하의 『전염병 전쟁』 등 한국전쟁기 전염병  
관련 저작 분석

신동원 \_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소장



#### 1. 2020년 코로나 대유행과 한국전쟁 70주년에 즈음하여

2020년은 세계사의 대격변이 진행되는 해이다. 온 지구인들이 후대의 역사학자가 21세기 초반 세계를 뒤흔든 역병의 대공습 시기로 규정할, 신종 역병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이라는 사건을 몸소 겪고 있다. 20세기 전반기 공중보건학과 의학의 발달로 전염병의 대유행은 대략 끝장난 것 같았다. 전문가들은 선진국이 풍요로운 사회로 접어들면서, 전염병을 흘러간 역사의 유물로 간주했고, 과잉영양이나 운동부족 때문에 생기는 암이나 혈관질환 같은 만성병이 새로운 시대 질병 문제라고 외쳤다. 항생제 남용에 따른 항생제 내성균의 문제가 지적되고, 에볼라 바이러스, 사스, 메르스 등 신종 전염병의 등장했어도 그것이 대체로 특정 지역이나 문화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다수 인류와 관련을 맺는 것이라 보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이런 낙관론은 설 땅을 잃었다.

〈표 1〉 2020년도 전염병 관련 도서 국내 출판 현황(자료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시기	도서
1월	토드 A. 헨리, 『서울, 권력 도시: 본 식민 지배와 공공 공간의 생활 정치』, 김백영·정준영·이항아·이연경 역, 산치럼.
2월	데이비드 콰멘,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 개정판』, 강병철 역, 꿈꿀 자유.
3월	제니퍼 라이트,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 이규원 역, 산치럼. David P. Clark, 『전염병과 함께한 인류 역사』, 김윤택 역, 윈더박스. 로날트 D. 게르슈테, 『질병이 바꾼 세계의 역사: 인류를 위협한 전염병과 최고 권력자들의 질병에 대한 기록』, 강희진 역, 미래의 창. 김우주, 『신종 바이러스의 습격: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우리는 새로운 감염병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반니.
4월	스티븐 존스, 『감염도시: 대규모 전염병의 도전과 도시 문명의 미래』, 김명남 역, 김영사. 다니엘 디포, 『페스트, 1665년 런던을 휩쓸다』, 정명진 역, 부글박스.
5월	신규환, 『페스트 제국의 탄생: 제3차 페스트 팬데믹과 동아시아』, 역사공간. 마크 해리스, 『전염병, 역사를 흔들다』, 이영석 역, 푸른역사. 리언, 『명화로 읽는 전염병의 세계사: 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뮤즈. 김서형, 『전염병이 휩쓴 세계사: 전염병은 어떻게 세계사의 운명을 뒤바꿔놓았는가』, 살림.
6월	이임하, 『전염병 전쟁: 한국전쟁과 전염병 그리고 동아시아 냉전 위생 지도』, 철수와영희. 예병일, 『세상을 바꾼 전염병: 세균과 바이러스에 맞선 인간의 생존 투쟁』, 다른.
7월	마크 제롬 윌터스, 『에코데믹, 끝나지 않는 전염병』, 이한음 역, 책세상. 롭 윌러스, 『팬데믹의 현재적 기원: 거대 농축산업과 바이러스성 전염병의 지정학』, 구정은·이지선 역, 너머박스.
8월	마크 호닉스바움, 『대유행병의 시대: 스페인독감부터 코로나19까지, 전 세계 전염병의 역사』, 제효영 역, 커넥팅. 김기명, 『세계를 뒤흔든 9가지 전염병』, 현복스.
9월	돈 브라운, 『코로나 팬데믹을 닮은 스페인 독감: 1918년의 비극적 전염병』, 신여명 역, 두레아이들. 캐서린 아놀드, 『팬데믹 1918: 역사상 최악의 의학적 홀로코스트, 스페인 독감의 목격자들』, 서경의 역, 황금시간. 김정민, 『우리는 감염병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문학과 함께하는 과학 산책』, 우리학교.
11월	아미amoto 타로, 『사피엔스와 바이러스의 공생: 코로나 시대에 새로 쓰는 감염병의 역사』, 한승동 역, 메디치미디어. 도현신, 『바이러스전쟁: 세계 역사와 지도를 바꾼, 장티푸스, 말라리아, 페스트, 콜레라, 스페인독감, 코로나19까지』, 이다복스.
12월	프랭크 M. 스노든, 『감염병과 사회: 페스트에서 코로나19까지』, 이미경·홍수연 역, 문학사상사.

〈표 2〉 국내 출판 전염병 관련 도서

시기	도서
2019년	낸시 톰스, 『세균의 복음: 1870~1930년 미국 공중보건의 역사』, 이춘입 역, 푸른역사. 어윈 W. 서먼, 『세상을 바꾼 12가지 질병』, 장철훈 역, 부산대학교출판부. 신규환, 『질병의 사회사: 동아시아 의학의 재발견』, 살림.
2018년	대한감염학회, 『한국전염병사』 II, 군자출판사. 장항석, 『판데믹 히스토리: 질병이 바꾼 인류 문명의 역사』, 시대의창.
2017년	카를로 M. 치콜라, 『크리스토파노와 흑사병: 갈릴레오 시대, 공중위생의 역사에 관한 연구』, 김정하 역, 정한책방. 오카다 하루에, 『질병과 치유의 역사: 세상을 뒤흔든』, 황명섭 역, 상상채널.
2015년	조승열·박홍식·최은경·최규진·이병관·김기흥, 『역사 속의 질병, 사회 속의 질병』,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역사문화원 편, 솔빛길.
2014년	한독의학박물관, 『조선왕실의 생로병사 질병에 맞서다』, 그리픽네트. 황상의, 『콜럼버스의 교환: 문명이 만든 질병, 질병이 만든 문명』, 을유문화사. 파트리크 드빌, 『페스트와 콜레라』, 양영란 역, 궁리. 권이혁, 『대한민국 보건발달사』, 지구문화사.
2013년	신동원, 『호환 마마 천연두: 병의 일상 개념사』, 돌베개.
2012년	존 케이조, 『콜레라는 어떻게 문명을 구했나: 세상을 바꾼 의학의 10대 발견』, 황상의·최은경·최규진 역, 메디치미디어.
2011년	전우용, 『현대인의 탄생: 해방 한국전쟁기 한국인의 질병과 위생 의료』, 이순, Joyce Filer, 『이집트 질병의 역사』, 강주섭 역, 신일북스.
2010년	권복규·김영미·이현숙·김순자·이정숙, 『전염병의 문화사: 고려시대를 보는 또 하나의 시선』, 해안.
2009년	대한감염학회, 『한국전염병사』 I, 군자출판사.
2008년	헨리 지거리스트, 『문명과 질병』, 황상의 역, 한길사.
2006년	존 켈리, 『흑사병시대의 재구성: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시대의 내밀한 이야기』, 이종인 역, 소소. 르네 뒤보, 『과학을 향한 끝없는 열정 파스티르』, 김사열·이재열 역, 사이언스북스.
2005년	헨리 지거리스트, 『질병은 문명을 만든다』, 이희원 역, 몸과마음. 리처드 고든, 『역사를 바꾼 놀라운 질병들』, 최상전 역, 에디터. 박윤재, 『한국 근대의학의 기원』, 해안.
2004년	신동원,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몸과 의학의 한국사』, 역사비평사. 마이클 비디스·프레더릭 F. 카트라이트, 『질병의 역사』, 김훈 역, 기림기획. 하마다 아쓰오, 『여행과 질병의 3천년사』, 김돈하 역, 심산. 예병일, 『현대 의학, 그 위대한 도전의 역사: 노벨 생리·의학상으로 보는 질병과 의학의 투쟁사』.

	사이언스북스.
2003년	필립 지글러, 『흑사병』, 한은경 역, 한길사.
2002년	수전 손택, 『은유로서의 질병』, 이재원 역, 이후. 로버트 멀케히, 『세균과의 전쟁 질병: 천연두에서 에이즈까지』, 강윤재 역, 지호.
2001년	아노 카렌, 『전염병의 문화사』, 권복규 역, 사이언스북스. 한국한센복지협회, 『한국나병사』, 대한나관리협회.
2000년	자크 르 고프, 『고통받는 몸의 역사』, 장석훈 역, 지호.
1998년	대한결핵협회 편, 『한국결핵사』, 대한결핵협회.
1997년	신동원, 『한국근대보건의료사』, 한울.
1996년	최제창, 『한미의학사』, 영림카다닐.
1992년	맥닐, 윌리엄 H. 저,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 한울.
1981년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국내 소개는 1989, 청년세대).
1966년	김두중, 『한국의학사』, 탐구당.
1965년	전중휘, 『한국급성전염병개관』, 의약계사.
1963년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富士精版印刷株式會社.

기억에 없는 가장 가까운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친 백 년 전 (1918년) 스페인독감이 다시 주목의 대상이 되었고, 세계사상 뚜렷한 족적을 남겼던 흑사병, 콜레라, 천연두 같은 역병도 기억의 대상으로 호출되었다. 2020년도 인터넷 서점인 알라딘의 국내 출판 도서목록을 봐도, 전염병 관련 책들이 얼마나 맹위를 떨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올해 한 해 출현한 책(24종 <표 1>)이 그간 근 60년간 나왔던 모든 종수(41종 <표 2>)의 절반을 넘는다.

올해 선보였지만, 이미 이전에 연구된 것도 시의에 맞춰 올해 출간된 것도 여러 종이다. 그중 2019년 12월 20일자로 재 간행된 이 분야 최고의 저서, 윌리엄 맥닐의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Plagues and Peoples)』도 코로

나 유행 상황에 맞춰 또 한 차례 재인쇄되었다.<sup>1)</sup> 올해 출간된 전염병 관련 도서는 한국사, 동아시아사, 유럽사, 미국사, 전 지구사(全地球史)를 망라한다. 교양서가 주류를 이루지만, 학술사도 적지 않다.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한국전쟁은 한국사에서는 해방을 맞이하자마자 분단 상황을 가져온 20세기 최대의 역사적 사건이자, 한국 사회 곳곳을 송두리째 뒤흔든 미증유의 전쟁이었다. 세계사적으로도 20세기 가장 끔직한 전쟁 중 하나였으며, 특히 전 세계가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둘로 재편되어 진영 싸움에 불이 붙은 최초의 세계 전쟁이었다. 홍수 같은 전염병 관련 서적 출판의 절반도 안 되지만, 한국전쟁 70주년을 기억하기 위한 서적 9종이 선보였다(〈표 3〉). 여기에는 거시적으로 한국전쟁의 성격을 재조명하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인천·웅진 같은 지역, 가족, 국민방위군 자서전, 사진첩 등 인간 군상의 구체적인 현장성을 포착하는 것이 주류를 이룬다. 그런 가운데 한국전쟁기 전염병 유행과 그것을 둘러싸고 벌어진 활동만을 꼼꼼하게 살핀 저작이 포함되어 있다. 이임하의 『전염병 전쟁: 한국전쟁과 전염병 그리고 동아시아 냉전 위생 지도』는 전염병과 한국전쟁이라는 양대 주제를 다 포괄한다.

그렇기 이번 서평에서는 이 책을 중심으로 하여 그 책의 내용과 학술적 의의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이 책의 문제 인식을 고리로 하여 횡적, 종적인 측면을 더욱 헤아리고자 한다. 이하에서 이번 주제 서평과 관련하여 함께 논의될 책은 한국전쟁을 대상으로 한 전우용의 『현대인의 탄생: 해

---

1) 윌리엄 맥닐,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 허정 역(한울, 2019).

〈표 3〉 최근 국내 출판 한국전쟁 관련 주요 도서

시기	도서
2020년	사무엘 F. 웰스, 『한국전쟁과 냉전의 시대』, 박행웅 역, 한울. 전갑생, 『인천과 한국전쟁 이야기: 한국전쟁 70년, 평화를 묻다』, 글누림. 신기철, 『한국전쟁, 전장의 기억과 목소리: 지역민에게 듣는 웅진 이야기』, 역사만들기. 이상호, 『한국전쟁: 전쟁을 불러온 것들, 전쟁이 불러온 것들』, 삼앤섬. 권현익, 『전쟁과 가족: 가족의 눈으로 본 한국전쟁』, 정소영 역, 창비. 박환, 『한국 전쟁과 국민방위군 사건-어느 초등학교 교사 유정수 일기』, 민속원. 존 리치, 『1950 한국전쟁 70주년 사진집』, 서울셀렉션. 이규상 편, 『끝나지 않은 전쟁 6,25: 역사 속의 사진, 사진 속의 역사 1』, 눈빛아카이브. 이임하, 『전염병 전쟁: 한국전쟁과 전염병 그리고 동아시아 냉전 위생 지도』, 철수와영희.
2017년	브루스 커밍스,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 전쟁의 기억과 분단의 미래』, 조행복 역, 현실문화. 한모니까, 『한국전쟁과 수복지구』, 푸른역사. 신기철, 『한국전쟁과 버림받은 인권』, 인권평화연구소.
2012년	이임하, 『적을 빠라로 물어라: 한국전쟁기 미국의 심리전』, 철수와영희.
2011년	한국구술사학회 편, 『구술사로 읽는 한국전쟁: 서울 토박이와 민통선 사람들, 전쟁미망인과 월북가족, 그들이 말하는 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 휴머니스트. 전갑생, 『한국전쟁과 분단의 트라우마: 새로운 자료, 다른 시각』, 선인.

\* 이에 앞선 2010년도까지 한국전쟁기와 관련된 연구는 서중석, 2010. “한국전쟁 자료와 연구의 방향.” 『전쟁과 사람들-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일상』, 선인, 7~13쪽에 정리되어 있다.

방 한국전쟁기 한국인의 질병과 위생 의료』(2011), 일제강점기를 대상으로 한 토드 A. 헨리의 『서울, 권력 도시: 일본 식민 지배와 공공 공간의 생활 정치』(2020), 동 시기 미국 상황을 다룬 낸시 톰스의 『세균의 복음: 1870~1930년 미국 공중보건의 역사』(2019) 등 세 책이다.

## 2. ‘냉전지도’와 ‘현대인의 탄생’, 그리고 북한의 방역 상황

이임하의 저술 『전염병 전쟁: 한국전쟁과 전염병 그리고 동아시아 냉전 위생 지도』는 책 제목처럼 한국전쟁기 전염병을 다뤘으며, 330쪽 분량이다. 이에 건취 전우용의 『현대인의 탄생』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 136쪽 분량으로 다뤘으니, 두 배가 넘는 분량이다.<sup>2)</sup>

전우용은 사료의 부족을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그런데 해방 이후 한국전쟁기까지의 의료사 분야가 거의 공백 상태로 남은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군정청, 대한민국 정부, 한국군 모두 체계적인 자료를 남기지 않았다. 국내에 있는 자료만으로는 당시 상황을 표면적으로 조차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 시기 한국인들은 현대인들과 달리 보건의료에 별 관심이 없었고, 그 분야 전문가들은 기록에 무심했다. 전쟁 이후의 기록도 다를 바 없었다. 육군만 해도 각 병과 단위의 역사서를 여럿 발간했으나 의무부대 역사는 예외였다. 미국 NARA(국립 기록관리처)에는 혹시 자료가 있을지 모르나 거기까지 갈 처지가 아니었고, 설사 갈 수 있다 해도 시간이 없었다. 신문기사나 단편적인 보고서 조각들로 퍼즐 맞추듯 전체상을 그려나갈 수밖에 없었다. 행인지 불행인지, 한국전쟁 60주년을 계기로 각 언론사에서 경쟁

---

2) 이에 앞서 『한국전염병사』 II에는 22쪽에 걸쳐 한국전쟁기 전염병 유행 상황이 요령 있게 정리되어 있고, 한국전쟁기 실무 현장에서 뛰었던 최재창의 『한미의학사』에서는 10쪽 정도를 할애했다. 신오성의 “한국전쟁 전후의 보건의료에 대한 연구, 1945-1959: 한국전쟁기를 중심으로”(서울대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1989)(110쪽)라는 선구적인 논문도 기억할 만하다.

적으로 특집 난을 만들었고, 여기에 숏한 사람들의 인터뷰와 회고담들이 실렸다. 60년이 흐른 뒤의 기억을 되살려낸 것들이라 사료가치는 떨어지지만, 빈틈을 메우는 데에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sup>3)</sup>

전우용의 책이 출간되던 해, 그가 처지가 안 되어 포기했던 미국 NARA(국립 기록관리처) 등에 보관된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 관련 문서를 사료로 연구한 서적 『전장과 사람들: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일상』이 출간되었다. 이 책에는 서중석의 “한국전쟁 자료와 연구의 방향”이라는 서장과 함께 이임하의 “한국전쟁기 유엔민간원조사령부의 인구조사와 통제”,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 자료 해제” 등 5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이임하의 연구는 10년 후에 출간될 『전염병 전쟁: 한국전쟁과 전염병 그리고 동아시아 냉전 위생 지도』의 첫 작업 성격을 띤다. 이 책의 발간은 수년전부터 일부 학자만이 연구해 오던 미국 소장자의 자료에 대한 국내 학자의 연구가 본격화했음을 뜻한다.<sup>4)</sup>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 자료는 [수 만여 쪽에 달하는 한국전쟁기 전후 자료의 보물단지였다.<sup>5)</sup> 이 기관의 정기보고서에

- 
- 3) 전우용, 『현대인의 탄생』, 8~9쪽.
  - 4) 서중석, “한국전쟁 자료와 연구의 방향”, 『전장과 사람들: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일상』, 13쪽.
  - 5) “이 책은 UNCACK이 생산한 문서를 기본 자료로 삼았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은 다양한 문서군(Record Group) 단위로 관련 자료들을 분산해서 보관하고 있다. 문서군의 소개는 김학제가 정리한 “주한 유엔 민간원조 사령부(UNCACK) 자료 해제”를 기초로 했다. RG 331: 2차대전기 연합작전 및 점령사령부 문서군으로 연합군 최고사령부와 UNCACK



는 건강·위생·전염병·병원이 사회 분야의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회 분야는 행정·정부와 정치·경제·사회·기타 항목 중 하나였다. 이임하는 이 자료를 포함해 5만 장이 넘는 문서를 읽고 정리한 결과물 중 하나로 오늘 주된 서평 대상 책자인 『전염병 전쟁: 한국전쟁과 전염병 그리고 동아시아 냉전 위생 지도』(이임하, 2020)를 집필했다.<sup>6)</sup>

이 자료 덕택에 이임하는 기존의 어떤 연구보다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더욱 충실한 연구 결과를 낼 수 있었다. 그는 이 책 이전에 이 주제와 관련하여 세 편의 학술 논문을 발표했다. “전쟁과 일상: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전쟁기 유엔민간원조사령부의 인구조사와 통제”(2009), “한국전쟁기 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의 보건, 위생 정책”(2013), “한국전쟁기 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의 만성 전염병 관리”(2014) 등이 그것이다.<sup>7)</sup> 올해 발표된 신간은 한국전쟁기 급

이 주고받은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UNCACK이 발행한 『공중보건 기술공보』가 포함되어 있다. RG 338: 미 육군 작전전술 군수조직 문서군으로 UNCACK이 직접 생산한 사령부 보고서나 일반 행정 문서들, 일반 명령들이 포함되어 있다. RG 407: 부관부 문서군, 1905-1981)으로 예하 부대에서 생산한 문서들이 있다. 상급 부대로 보고되어 종합되기 전의 원본 자료들이다. RG 469: 대외원조기관 문서군(1942-1963)으로 공중보건부 보고서와 한국보건부 문서 등이 있다. RG 550: 미 육군 태평양사령부 문서군(1945-1984)으로 UNCACK과 기타 민사, 경제원조에 관한 월간 보고서와 연간 보고서가 있다. RG 554: 극동군사령부 연합군총사령부 유엔군 사령부 문서군(1945-1960)으로 다른 문서군에 있던 한국전쟁 시기 한국과 관련된 부대의 문서들이 재분류되어 있다. UNCACK과 관련된 대부분의 자료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사령부 보고서부터 지역별 팀 보고서, 주간 보고서 등 UNCACK이 생산한 문서들이다.”(이임하, 『전염병 전쟁: 한국전쟁과 전염병 그리고 동아시아 냉전 위생 지도』, 6~7쪽).

6) 이임하, 『전염병 전쟁: 한국전쟁과 전염병 그리고 동아시아 냉전 위생 지도』, 7쪽.

성전염병에 대한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위의 2013년도 연구를 대  
 폭 확장한 가운데, 2009년도 논문에서는 인구통계 부분을, 2014년도 논  
 문에서는 결핵 관리 부분을 보완했다. 선행 연구 중 성병·나병(한센씨병)  
 등 만성적 전염병 연구는 책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급성전염병 분야  
 로 논의를 집중하기 위해 이번 책에서는 배제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 책  
 의 전반부(1장~6장)는 상기 세 논문을 확충한 결과를 담았다.

1장에서는 한국군 신병으로 충원될 국민방위군에서 발진티푸스가 어  
 떻게 퍼지게 되었는지 살폈다. 1950년 12월 정부는 모자란 병력을 보충  
 하기 위해 17세에서 40세 사이 장정을 대상으로 국민방위군 동원령을 의  
 결했다. 이 장에서는 두 가지 사실을 밝혔다. 첫째, 유엔군 사령부의 조사  
 결과 국민방위군 사상자 다수가 아사나 동사가 아니라 전염병 발진티푸  
 스에 걸려 사망한 것이었음을 확인했다. 둘째, 전염병의 통제 여부가 전  
 쟁의 승패를 가른다는 인식에 따라 유엔군사령부에서 특단의 조치로 민  
 간인의 전염병 통제를 위한 미8군 사령부 산하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  
 (UNCACK)가 조직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국민방위군이 1951년 3월에 해  
 체되는 것은 군수뇌부의 부패 행각뿐만 아니라, 발진티푸스 유행을 통제  
 하지 못한 데도 큰 원인이 있었다는 점이 확실해졌으므로, 이후 모든 한  
 국전쟁 관련 역사서에서는 이런 상황을 서술해야 할 것이다.

- 
- 7) 이임하, “전쟁과 일상: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전쟁기  
 유엔민간원조사령부의 인구조사와 통제”, 『사림』 33, 2009; “한국전쟁기 유엔민간원조사  
 령부(UNCACK)의 보건, 위생 정책”, 『사회와 역사』 100, 2013; “한국전쟁기 유엔민간원  
 조사령부(UNCACK)의 만성 전염병 관리”, 『사림』 49, 2014.

2장에서는 미8군 사령부의 명령에 따르는 군부대지만,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 원조를 담당한 기관인 UNCACK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들의 임무, 휴전협정 후의 명칭 변경과 전후 복구 활동을 다뤘다. 이임하는 군부대로 전시 테스크포스 형태의 조직이 전후 민간 부분의 보건을 포함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상조직으로 전환된 점은 유례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sup>8)</sup>

3장에서는 콜레라·장티푸스·천연두(두창) 등 여러 주요 급성전염병 통계를 살폈지만, 주된 관심은 리케차균이 몸의 이를 매개로 하여 발생하는 발진티푸스 유행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방위군과 피난민의 몸 위생 상태는 ‘이가 퍼질 가장 좋은 조건’으로 매우 열악했으며, 그렇기에 “당시 유행한 발진티푸스는 사회적 질병이었다”<sup>9)</sup>고 말한다.

4장 “전인구에 백신 접종을!”과 5장 “전 한반도의 DDT화”는 1951년 한 해 벌어진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한 유엔군사령부 공중보건 복지부의 예방접종과 DDT 살포를 다뤘다. 전 국민에 접종되고 살포되어 과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다. DDT 살포의 효과를 위해 마치 총같이 생긴 살포 기구로 신체 구석구석 속속들이 살포하는 방법을 세밀하게 보여준 것, 아울러 살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살포 빈도와 유지 시간을 ‘과학적’으로 확정했음을 보여주는 연구는 이 책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것이다. 다른 부분 서술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이 부분 관련 포스터나 도판은

---

8) 이임하, 『전염병 전쟁: 한국전쟁과 전염병 그리고 동아시아 냉전 위생 지도』, 15쪽.

9) 위의 책, 16~17쪽.

생생한 현장감을 느끼게 한다.

6장에서는 예방접종과 DDT 살포를 담당한 비상의료조직인 보건진료소(의사 1인·간호사 1인·보조 1인 등 3-5인으로 구성된 의료반)의 확대 과정(1951년 3월 말 49개, 9월 343개, 1952년 1월 500개)과 부실 운영 등을 다뤘다. UNCACK가 담당한 의약품 지원(전체 예산의 약 70%)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국고 지원(약 20%)의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의료 인력의 군 징집이 계속되었기 때문이었다.<sup>10)</sup>

이 책의 후반부(7장~9장)는 저자의 시각이 공간적으로는 세계로 확대하고, 내용적으로는 분야의 심층으로 깊어진 내용을 담았다. 저자는 “여는 말”에서 “단일국가의 한 시대에 매몰되어 있는 내 시각을 확장하도록 조언해 주었다. 한국의 1950년대가 아니라 동아시아 냉전을 읽어내도록 주문했다”<sup>11)</sup>고 하여 자신의 시각 확장, 심화가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소장과 여러 동료 사이의 토론 결과임을 밝혔다.

7장 “공중보건의 통치성”에서는 세계 지역으로 논의를 확장한다. WHO(세계보건기구)의 질병과 보건에 대한 개입, 통계의 축적과 교육 활동 등의 방식은 전 세계적인 ‘파놉티콘’적인 성격을 띠었으며, 그것이 일제강점기 위생경찰을 내세운 억압적인 통치술과 달라진 것임을 주장했다.

8장 한국인의 ‘위생’ 좌표에서는 외국인(미국인) UNCACK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백신 접종, DDT 살포 같은 활동이 상호 쌍방 존중의 행

10) 위의 책, 18~19쪽.

11) 위의 책, 9쪽.

태가 아니라 [건강과 과학이라는 미명하] 일방적인 강요의 성격을 띠었다고 보았다. 이 행위들이 미국인의 시선으로 한국의 농민, 생활, 문화를 타자화하는 한편, 더 나아가 치마를 들쳐 DDT를 뿌릴 정도의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수치심을 유발할 행위는 젠더(섹슈얼리티), 민족, 인종적인 측면까지 확장된 것으로 파악되었다.<sup>12)</sup>

9장 “동아시아 냉전 위생 지도”에서는 한국에서 행해진 ‘세계보건일’ 등 보건활동이 WHO가 매년 주제를 달리 선정하여 일본·태국·대만·말레이시아·필리핀·베트남·미얀마 등의 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한 활동의 일환이었음을 보였다. 아울러 그것이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영유아 대상의 모자보건 수첩의 발행과 예방접종 등으로 계승되었음을 주장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한국에서 시행한, 전 국민 백신 접종 위주 보건사업의 성공을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간주한 극동사령부 보건복지부장의 견해에 대한 비판, 전후 미국 유학생을 통한 미국식 의료제도의 이식에 대한 짧은 설명으로 이루어진다. 책의 대미는 과학적 합성물의 대명사 DDT가 환경오염의 주범임이 밝혀지면서 한국전쟁기 이루어진 DDT 대량 살포 문제점에 대한 성찰로 장식된다.<sup>13)</sup>

이 책의 성격은 전우용의 책과 견줄 때 잘 드러난다. 이입하는 투키디데스, 전우용은 헤로도토스 스타일이다. 이입하는 대체로 자료를 소개하고, 그 자료에 근거해 실증적인 논의를 전개한다. 그렇기에 법규나 통계 사

---

12) 위의 책, 150쪽, 270쪽.

13) 위의 책, 302~326쪽.

료 등이 다소 지루할 정도로 자세하게 소개된다. 스스로 “자료에 치이기도 하고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없었다”<sup>14)</sup>고 고백했듯이, 이 책은 5만 쪽이 넘는 자료를 어떻게 효율적,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지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 이와 달리 신문·회고록·인터뷰와 회고담을 사료로 하여 퍼즐을 맞춰나간 전우용은 한국전쟁의 상황, 겪은 피해, 자신들의 역사 참여 등이 횡적으로 펼쳐지면서 역사적 생동감을 전달한다.

이 점은 『현대인의 탄생』 목차만 봐도 느낄 수 있다. 한국전쟁기 전염병과 보건의료를 다루는 2부 “전쟁과 상처의 시대, 1950.6~1953.7”는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5장 “전쟁, 질병과 고통의 전시장: 새로운 살상, 새로운 고통”, 6장 “병원도 무기가 되는 전쟁의 역설: 전쟁터, 병원과 의학의 시험장”, 7장 “죽음 곁에서 사는 사람들: 정신도 징발하는 현대전”, 8장 “한국인, 의학의 눈으로 제 몸을 보다: 청결과 위생 담론의 내면화”. 전우용의 책에서는 한국인의 활동, 특히 의료인들의 보건사업, 의학 활동 등 역사 참여 증언이 상세하다. 이런 인간성에 관한 내용은 이임하의 책에서는 읽어내기 힘든 부분이다. 이임하는 매우 충실한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그것은 감정이 실리지 않은 광범위한 관찰 보고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는다. 또 역사 해석으로 주체이지만 객체화한 한국인 집단에 대한 미국인(세계인)의 일방적인 권력 행사를 다뤘지만, 현상 파악을 넘어 그런 현상을 낳는 과정에 펼쳐진 인간(행위자)의 역동성 파악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두 책의 제목이 이를 잘 드러낸다. 궁극적으로 이임하는 냉

14) 위의 책, 7~8쪽.

전지도 파악을, 전우용은 한국인이 어떻게 한국전쟁을 계기로 현대인으로 거듭났는지 또는 거듭 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그렇기에 양자는 상호 보완적이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이임하의 책이, 어떤 행위들이 펼쳐졌는지는 전우용의 책이 도움이 된다.

한국전쟁의 또 다른 지역, 북한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때마침 이임하의 책이 출간되는 바로 그 무렵 문미란의 논문 “한국전쟁기 북한의 전시 보건의료 체계의 구축과 연변 조선인 사회의 지원”<sup>15)</sup>이 보고되었다. 이미 북한학계 홍순원의 『조선보건사』(1981)에서 이 부분을 상세하게 기술한 바 있지만, 문미란의 연구는 북한 체제 바깥 남한학자의 작업이라는 점에서 결을 달리한다. 문미란은 『로동신문』·『조선중앙년감』·『내각공보』와 같은 북한 공식 간행물, 한국전쟁기 소련군사고문단장인 라주바예프(B. H. Рагубаев) 보고서, 미군노획문서, 미국 의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위생방역사업 지침서 따위, 전쟁 이후 복간(復刊)된 『인민보건』의 전쟁기 경험담 등을 참고하여 이 논문 결과를 냈다.<sup>16)</sup> 이 논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전쟁 직후 군 중심으로 보건의료 체계를 짠 것은 유엔 주도하 남한과 비슷하다. “위생방역사업은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1차적인 필요 외에, 광범위한 대중 참여를 강조함으로써 이들을 통제·동원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또 “막대한 의료 인력에 대한 수요

---

15) 문미라, “한국전쟁기 북한의 전시 보건의료 체계의 구축과 연변 조선인 사회의 지원”, 『의사학』 29-2, 2020.

16) 위의 논문, 505쪽.

는 단기 양성으로 충당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있었다. 열악한 사정은 북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북한에서도 외부 지원 없이는 그 열악함을 해결할 방도가 없었다. 남한이 미국 중심 유엔군 지원으로 보건 활동이 펼쳐지고 있을 때, 북한에서 연변 조선인 사회라는 외부 지원이 큰 구실을 했다.<sup>17)</sup> 전시 WHO 중심의 보건의료가 전후 사업의 모태가 되었듯이, 북한에서도 이 시기에 형성된 대중동원형 인민보건 체제가 이후 사업의 주요 모델이 되었다.<sup>18)</sup>

남·북한 모두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이는 이 시기 세계 차원의 보건의료 형식이 정형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대변화가 있었다. 미국 공중보건제도건, 영국의 NHS(국가보건서비스)건, 소련의 공산주의적 보건의료 체계건 ‘총력전’ 국가 중심 보건의료제도가 더욱 굳건해졌다. 의학도 한몫 단단히 했는데, 20세기 이후 예방접종, 설과제, 항생제, 외과수술 등의 진보는 전 세계적인 양상을 띠었다. 한국전쟁에는 이런 것이 총결집했으며, 냉전시기에는 더욱 확대, 심화되었다.

### 3. 더 깊은 논의를 위해

이임하의 『전염병 전쟁: 한국전쟁과 전염병 그리고 동아시아 냉전 위

17) 위의 논문, 527쪽.

18) 위의 곳.



생 지도』의 후반기 세 챕터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은 매우 논쟁적이다. 거칠게 말해서, 한국전쟁기 형성된 보건의료가 이후의 모태가 되었다는 주장, WHO 주도 세계보건 활동이 궁극적으로 전 세계 차원의 파놉티콘의 성격을 띠었다는 주장, 미국의 제국주의적 파워가 전 한국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행사되었다는 주장 등은 현상적으로 일부 타당한 듯 보이나, 입증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복잡한 역사 상황을 고려한 더욱 세심한 논의 전개도 요청된다.

첫 번째 주장과 관련해서는 1953년에 출현한 맥도날드 보고서를 사례로 들고자 한다. 런던대학 위생학·열대의학 교실 소속으로 짐작되는 맥도날드(Macdonald)는 공동연구원 빅크레메싱거(Wickremesinghe), 포레스트(Forrest)와 함께 WHO와 UNKRA(유엔 한국 부흥위원단) 조사단으로 1952년 10월 한국에 와서 이듬해 1월까지 3달 동안 한국의 보건의료 상황을 조사했다. 그들은 상황 조사와 진단, 미래 계획을 담은 보고서가 140쪽 분량의 맥도날드 보고서, 정확히는 “WHO/UNKRA의 한국 보건 기획 임무 보고서(Report of the WHO/UNKRA Health Planning Mission in Korea)”를 제출했다.<sup>19)</sup> 이 보고서는 런던 대학의 맥도날드 등이 남한에서 두 달 반 머무르면서 작성한 것으로, 당시 보건의료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으며, 전후 남한 보건의료의 재건에 지침으로 활용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인구통계·경제 상황·환경위생·급성전염병 유행 상황·만성 전염병 상황·의료 시설·의

---

19) WHO/UNKRA, Report of the WHO/UNKRA Health Planning Mission in Korea, Feb. 26, 1953.

료 인력·의학 교육·여성계·의료 산업 등에 관한 각종 지표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안타깝게도, 그의 초기 구상의 짐을 크게 덜어 주었을 것이 틀림없는 이 보고서를 이임하는 보지 못한 것 같다.

이 보고서의 국내 실현 과정, 전쟁기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소로 전환되는 과정이나 실현된 내용의 성격은 이임하가 파악한 것처럼 단순하지 않았다.<sup>20)</sup> 이 보고서에서는 1952년도 전국적으로 실시된 보건진료소는 실패한 모델로 규정했으며, 완전히 다른 방식, 규모를 크게 확대한 지역 거점 보건소(Health Unit) 설치를 제안했다. 이 보건소는 1명의 의사, 1명의 보조 의사, 1명의 공중보건 간호사, 5~6명의 위생검사원, 10~12명의 간호사 또는 산파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공중보건 업무와 예방의학, 치료 의학을 모두 담당토록 한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거점이었다.<sup>21)</sup> 이 보건소는 이미 스리랑카(Ceylon)를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25년 동안 성공을 거둔 방식이었다.<sup>22)</sup> 맥도날드 보고서의 내용은 전후 한국 보건의료 복구 개혁

20) 이임하, 앞의 책, 205~211쪽. 맥도날드 보고서의 제안이 1962년까지 실현되는 과정은 좋고, “Public Health and People’s Health-Contrasting the Paths of Healthcare Systems in South and North Korea, 1945-1960,”(Liping Bu & Ka-che Yip Edit, *Public Health and National Reconstruction in Post-War Asia: International Influences, Local Transformations*, Routledge. 2014, pp.90-111)에 정리되어 있다.

21) 이임하, 앞의 책, p.34.

22) “WHO/UNKRA 제안서에 따르면 이 보건소는 주민 수 50,000~70,000 정도를 단위로 1개 소씩 설치되어, 그럴 경우에 전국적으로 대략 370개가 설치되어 촌락 지역과 준 도시 지역 전체를 커버하게 되어 2200만 명 인구에 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840개(전체 면 약 1,449~1,531)인 무의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위의 책, p.35).

의 지침으로 받아들여졌다. 1956년에 보건소법 제정, 1958년 「보건소법 시행령」으로 이어졌다. 이 시행령에서는 맥도날드 보고서가 제안한 치료 의학 기술 부분은 제외되었다가 1962년 개정된 보건소법에 따라, 보건소에 공의(公醫) 파견의 형태로 회복되었다. 이런 과정은 한국전쟁기 방역 보건 활동이 전후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이후의 과정은 기존 방법의 단순한 계승이나 연장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되었음을 뜻한다. 바뀐 결과가 더 놀라운데, 전 국민 백신 접종,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DDD 살포라는 전시 방식이 아니라, 환경위생·급성 전염병 관리·만성전염병 관리·의료 시설·의료 인력·의학 교육·보건 계몽·의료 산업 등을 종합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최소 면 단위의 보건의료 핵심 기지 확보 방식이 굳혀졌다는 점이다.

둘째, WHO 파놉티콘 쟁점에 대해서는 올해 출간된 토드 헨리의 성찰을 곱씹어 보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그는 『서울, 권력도시』(원제는 Assimilating Seoul) 제4장 “공중적 동화: 주민 생활의 청결과 위생”에서 일제강점기 ‘청결과 위생’을 둘러싸고, 일제의 위생 경찰, 식민주의자, 한국인 민족주의자, 빈민 등 여러 행위주체자(actors)가 벌인 활동을 입체적으로 조망한다.<sup>23)</sup> WHO가 세계적 차원의 파놉티콘을 행사하고 있다고 해도, 역사 서술은 감시자와 피감시자의 구체적인 행동이 빠진 감시카메라에 대한 ‘감시 현상’ 묘사만으로 채워질 수는 없다. 헨리 토드가 여러 행위자

23) 토드 A. 헨리 저·김백영·정준영·이향아·이연경 역, 『서울, 권력 도시-일본 식민 지배와 공공 공간의 생활 정치』, 산치림, 2020, 264-296쪽.

들의 활동을 꼼꼼하게 재구성한 것과 같은 접근법이 필요하다. 한국전쟁기 유엔군 병사, WHO 파견 각국의 의료진, 한국인 정부 관료, 군의관, 의료인, 지식인, 종교인, 피난민, 일반 국민 등은 각자 자기 입장에서 UNCACK 중심 보건, 방역 활동을 기억한다.<sup>24)</sup> 한국전쟁이라는 그 지역, 그 시간을 무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잊힌 심층의 바다로부터 건져 올리는 일이 어려운 작업이 되겠지만,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작업이 거시적인 현상 파악과 만났을 때,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작년에 국내에 출간된 낸시 톰스의 『세균의 복음, 1870~1930년 미국 공중보건의 역사』는 탁월한 저작이다. 이 책의 내용은 한국전쟁기 한국에 파견된 미국인이 전염병에 대해 어떤 사고와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려준다.<sup>25)</sup> 낸시는 1870~1930년 미국에서 일어난 대중의 질병에 대한 태도가 변하는 것을 탐구했다. 그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위계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것이 실험 과학자, 개업의, 위생 개혁가, 관심 있는 보통 사람들처럼 각기 다양한 청중 사이에서 사상과 이미지가 교환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파악했다.<sup>26)</sup> 아울러 저자는 기존 공중보건학적 역사 접근, 즉 국가의 입법 조치와 동일시한 공중보건 서사

24) 한국 보건의료 재건기 WHO 활동을 다룬 논문도 최근에 1편 나왔다. KIM Kyuri·PARK Buhm Soon, “Infrastructure-building for Public Health: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Tuberculosis Control in South Korea, 1945-1963”, 『의사학』 28-1, 2019.

25) 낸시 톰스 저·이춘입 역, 『세균의 복음-1870-1930년 미국 공중보건의 역사』, 푸른역사, 2019.

26) 위의 책, 51쪽.

가 아니라, “개인과 가정의 실천(practice), 다시 말해 보통 미국인들이 질병을 예방하는 습관”을 읽어냈다.<sup>27)</sup>

낸시 톰스는 자신의 연구가 미국에 한정되는 것이라 말하면서도, 영국과 프랑스 같은 다른 서구 국가들에서도 같은 시기에 유사한 공중보건운동이 생겨났다는 점, 식민지배 세력을 통해 세균의 복음이 중국, 인도, 필리핀 같은 비서구 국가들로 수출되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sup>28)</sup> 특히 이런 관점에서 광고의 중시, 소비자 지향적인 접근법, 정당 정치 싸움과 다른 일반 시민의 목표로서 건강 추구를 ‘미국적’ 특징으로 파악했다.<sup>29)</sup> 미국의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런 일은 전쟁기간 내, 전후 복귀 이후에 한국에서도 일정 나타나는 세계적 특징이기로 할 것이다. 그렇지만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낮은 경제 상태, 강한 전통의 무게, 식민시기의 불편한 위생 경험 등으로 한국에서는 미국과 다른 ‘세균 복음’이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입하는 이런 내용의 입구 지점을 세 가지로 알려줬다. 그 길로 들어서 미로를 탐구하고 출구 부분을 파악해 내는 것은 그 자신과 동료 연구자들 모두에게 후속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사족이지만, 일본 미군정치의 번역을 근거로 이입하의 책에서 ‘보건’이라는 용어를 ‘위생’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은, 신선하지만 잘못된 것이다.<sup>30)</sup> 한국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형성된 ‘위생’의 강압적 성격을 기억하

---

27) 위의 책, 52쪽.

28) 위의 책, 57쪽.

29) 위의 책, 58쪽.

30) 이동원, “한국 공중보건의 역사를 추적하며, 동아시아 냉전 위생지도를 스케치하다.” 이

여 혐오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렇기에 해방 이후 일본과 달리 남한에서는 ‘public health’를 ‘위생’이 아닌 (공중)보건, 북한에서는 인민보건으로 번역했다. 미군정에서도 처음에는 일본처럼 ‘위생’이라는 번역을 썼으나 (1945년 9월 24일), 이를 의식하여 한 달 후에는 ‘보건’(1945년 10월)이라는 말로 바꿨다.<sup>31)</sup> 1960년 남한의 중앙방역연구소장인 한응수는 이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보건(Public Health)이라는 술어는 1945년 해방 이후에 새로이 도입된 신 용어로서 과거에는 위생이니 또는 의료이니 하던 용어를 좀 더 새로운 각도로 써 쓰게 된 것이며, 이제는 그래도 제법 귀 익게 들리는 말이지마는 처음에는 상당히 어색한 어감을 주었던 것이다.<sup>32)</sup>

혹독한 식민지 ‘위생’을 겪은 한국은 보건의료 총칭으로서 이를 사용하는 것을 혐오했지만, 식민지배자 일본에는 이런 의식이 희박했던 것이다. 이처럼 한 연구자가 매우 구체적인 사료를 토대로 올바르게 알고 있는 지식조차도 꼼꼼히 맥락을 살펴보면,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 튀어나오기도 한다. 연구자 누구나 이로부터 자유롭지는 않다. 헨리 토드나 낸시 톰스 같은 외국학자의 작업이 부러운 것은 책을 발표하기 전에 자신의 원고

입하, 『전염병 전쟁: 한국전쟁과 전염병 그리고 동아시아 냉전 위생지도』(『역사문제연구』 24-2, 2020, 467쪽).

31) 해장 직후 ‘위생’, ‘보건’ 용어에 관한 내용은 줄고, 앞의 논문, 94쪽을 볼 것.

32) 한응수, “한국보건사업과 외원(外援)”, 『보건세계』, 1960년 4월호, 33쪽.

각각 챕터를 수많은 동료가 비판적으로 읽어준다는 점이다(그들이 쓴 감사의 글 쪽수를 보라). 이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을 더욱 설득력 있게 가다듬게 된다.

그래도 우리는 현 시점에서 ‘한국전쟁과 전염병’이라는 낯선 주제로 전우용, 이임하의 양대 저서를 가지게 되었다. 이 두 저작은 당장 영어로 번역되어 세계인이 같이 읽어도 될 만한 콘텐츠와 논리를 갖추고 있다. 한국사학계의 성과다. 이 성과를 더욱 키우기 위해서는 세계인이 더욱 공감할 수 있는 자료의 발굴, 체계화, 논리의 입증, 사실 오류의 제거 등의 제반 작업이 필요하다. 그것은 연구자 개인이 아니라 우리 학계 전체 차원에서 함께 수행해야 할 일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전쟁 이후 오랫동안 한국의 전염병 대응이나 보건의료 체제가 쉽게, 잘 정착하지는 못했다. 그것은 보건의료 내부의 변화로만 달성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막대한 투자, 실질적인 공중의 탄생, 공중(민주) 시민 의식의 탄생이 동반되어야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전우용이 잘 파악했듯, 한국전쟁으로 부득이 한국인은 현대인의 길을 걷는 상황에 들어섰다. 진정한 ‘현대인의 탄생’은 오늘날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2020년도 코로나 유행에 대한 한국(인)의 대처를 보면, 세계사적 의미에서 ‘한국적 현대인의 탄생’을 달리 생각해야 하는 지점까지 이른 것 같다. 국가 위주의 보건의료제도도 아닌, 개인주의에 충실한 보건의료이 아닌, 국가와 민주시민의 공진화를 특징으로 하는 방역, 보건의료체제가 세계사상 최초로 한국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